



사진 출처: 알라딘(www.aladin.co.kr)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환경정의: 쟁점, 약속, 실행

데이빗 카루더스 외 (지은이) | 정경원 외 (옮긴이)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출간일: 2012-11-09

ISBN(13): 9788974647469

432쪽 | 220*145mm

환경정의는 사회정의론을 환경문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서는 형평성의 원리가 중요하며, 공평한 부담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환경이 주어진 것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오염이 심해지자 그 실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환경피해는 급속하게 기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통해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게 투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부정의(環境不正義)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부정의는 환경이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는 순간부터 잉태되어 있는 것이다. 환경재화로서의 환경은 이미 다양한 형식으로 시장 기제에 흡수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이러한 시장 기제를 완전히 배제시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즉 동일한 환경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대응방법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본 역서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발생한 수많은 대중 환경운동 사례들을 개념적·실증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이 지역 환경과 관련해 과학적으로 신뢰할만하고도 유용 가능한 학술적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실정에서 이 지역에서의 환경정의의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알라딘

라틴아메리카 인종과 정치

김기현 (지은이)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2012-11-30

ISBN(13): 9788926839010

428쪽 | 223*152mm

라틴아메리카 사회는 분명히 인종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종문제가 부각되지 않는가? 1980년대의 외채위기와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로 인해 기존의 좌파가 위기를 겪으면서 새롭게 부각된 것이 신사회운동, 즉 정체성의 정치이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그중 원주민 운동과 종족성의 정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최근 좌파 정당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원주민 운동과 종족성의 정치가 다소 위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을 비롯한 흑인들의 인종문제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인종문제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참여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